◀고동순 예산지부장

회원들의 세대교체로 도약하는

예산지부

예산지부는 '89년에 지부가 설립되어 1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견의 지부로써, 현재 제5대 고동순 지부장이 지부를 이끌어 가고 있다.

25명의 지부회원을 두고 있으며, 임원은 부지부장 1명, 총무 1명, 이사 7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야산이 많아 양돈하기에 좋은 예산은 아직까지 양돈이 크게 발전한 곳은 아니며, 과수·낙농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돈이 미약하지만 발전 가능성은 상당하다.

예산은 큰 농장이 적고 전업농이 많으며, 지역의 총 사육두수는 8만여두 정도라고 한다. 예산지부의 회원들은 예산지역내 짜임새 있고 규모있는 양돈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모돈 800여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다. 특히, 젊은 회원들의 다수 유입으로 협회 회원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젊은 회원들의 단결을 중심으로 지부활동이 점점 가속되고 있다.

젊은 양돈인 영입으로 사업추진력 배가

작년 7월부터 지부를 맡은 고동순 지부장은 여지껏 거리가 있었던 젊은 양돈인들을 협회의 회원으로 영입하면서, 지역내의 젊은 양돈인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뭉치게 하여 협회의 사업추진력을 배가 시켰다.

지난 98년 7월부터 시작한 '대상 양돈계열화 사업'은 대상과 계약을 맺고 사료공동구매, 돼지 공동판매를 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지부회원들의 결속이 더욱 튼튼해지며, 판매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육질좋고 규격화된 돼지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 사업은 대상으로부터 4%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출하하는 회원들이 이익을 볼 수 있으며, 지부운영에도 도움을 얻고 있다.

또한, 회원들 중 젊은 회원 10명으로 구성된 공동방역단은 97년 7월 발족하여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무료 약품 공급으로 인해 회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공동방역단 사업은 정기적인 소독과 예방(돈콜레라, 일본뇌염, TGE, PED 등을 중심으로)에 힘을 쏟고 있다.

지부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공수정센터는 97년 4월부터 시작하여 두당 10,000원씩의 싼 가격에 정액을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농가의 경우 70~80%가 인공수준을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외에도 지부는 양돈기자재를 공동구매해서 지부 사무실에서 싸게 판매하는 등 많은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여름철엔 회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야유회를 가지는 등

협회를 통해 많은 소식과 지식을 얻고, 양돈인 사이의 친목을 다지고 있다.

회원들의 재해에 정성어린 공동체의식 발휘

예산지부는 회원농가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 모든 회원들이 힘을 모아 피해농가가 어려움을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힘이 유난히 뛰어나다.

지난해 수해피해를 비롯하여, 금년에는 회원농가 2곳에서 화재사고, 가스사고가 각각 발생하였다. 이럴 때마다 회원들의 힘을 모아 그 회원이 다시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가없는 도움을 주고 있다.

▲지부의 분위기는 항상 밝다. 좌로부터 이상열 이사, 백윤현 총무, 정상선씨, 고동순 지부장, 김진완 이사.
◀지부에서는 97년 7월부터 공동사업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백윤현 총무(왼쪽)이 주축이 되어 가축공동방역차량(사진 뒤)를 이용해 각 농장에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 26일 지부의 회원으로 있는 이창연씨의 무창돈사에 전기가 끊겨 돼지 1,500두가 질식사하는 피해를 당했다. 돼지들의 무게는 상당하였으며, 빠른 부패로 악취가 나기 시작하였다.

20여명의 지부회원들은 모두 내가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꼬박 작업하여 돼지를 운반하고 땅에 묻어 돈사를 원상복구 시켰다. 그 후 20일만에 돼지가 들어갔고 농장이 재운영 되었다.

돼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더욱 회원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이창연씨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도움이었다.

물론 지부에서는 이창연씨에게 금일봉을 전달하기도 하였지만, 이보다는 회원들의 진심어린 공동체의식이 빛을 발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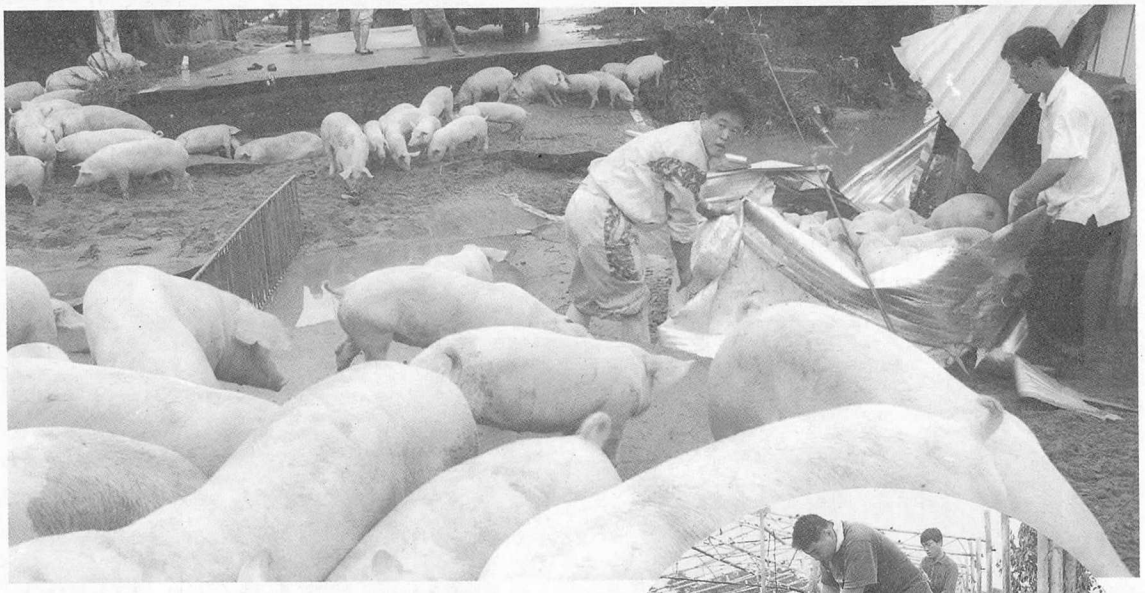
이외에도 화재가 난 농장을 힘을 합해 재건하고, 수해로 피해입은 회원농가를 도우는 등 젊은 회원들이 지부운영의 중심으로 나서면서 모두가 한 가족이 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고동순 지부장은 계속해서 사료공동구매 사업을 해 나가면서 이에 의해 원가를 줄여나갈 방침이며, 회원들 위주의 사업과 함께 소비자들과 연관되는 사업도 병행해서 해 나갈 방침으로, 내년엔 돼지요리 시식회도 한번 가져 볼 계획이라고 한다.

"돼지고기의 소비가 너무 삼겹살, 갈비, 목심으로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위의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소비패턴 보다는 식당의 돼지고기 소비체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의 식당체계에서는 특정부위의 소비를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일들을 중앙회에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며 우리 양돈인들은 삼겹살을 먹지말고 선호부위는 제외한 다른 부위를 먹어야 한다며 공동순 지부장은 웃어보였다.

실질적인 사료값 인하 요구

예산은 사과로 유명한 지방으로 많은 과수단



▲지난 96년 8월 회원들이 힘을 합해 수해를 당한 농장을 복구하는 모습

▶올해초 한 회원농장에 화재가 발생해 막심한 피해를 입었으나, 회원들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했다.

▶서로서로 믿고 도우는 분위기속에서 회원들의 친목은 유난히 뛰어나다.

지가 있어 축산 분뇨를 처리만 잘 할 경우 수요는 충분하다. 분뇨를 처리해 과수단지에 판매할 경우, 분뇨처리비의 50%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처리시설을 설치한 농가가 많으며,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 보급하는 곳으로써 축산의 지역적 위치가 높다고 한다.

현 고동순 지부장은 어려운 여건에 있던 지부의 힘을 키워, 이제 지부 발전의 기틀을 잡아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회원에게 육질개량을 위한 거세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로인해 거의 모든 회원농가에서 거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부에서는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의해 효소제를 사료에 섞어 먹일 수 있게 공급하고 있다. 이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 고동순 지부장은 내년 상반기에 양돈농가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그만 둔 몇 농가를 비롯, 자기자본이 낮은 농가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힘이 들 것으로 이야기 했다.

"사료비의 경우 40%가량 가격이 오른 후 다시 내려 현재는 15% 인상한 수준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게 사용하는 사료만 가격이 많이 내렸고,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육성돈사료 등은 가격이 적게 내려, 인하수준만 높지 실제 인하폭은 크지 않습니다. 아직 IMF이전 수준의 30%가량 인상된 가격으로 생각됩니다"라며 아직까지 높은 사료값을 사료회사에서 더 내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취재 : 조진현〉 養豚